■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43-170.
http://doi.org/10.17948/kcs.2019..83.143

【특집2: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1)】

가와이문고(河合文庫) 개관*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목 차

1. 머리말
2.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박사
3. 장서 구입 경위
4. 가와이문고본의 연구
5. 가와이문고의 소장처
6. 가와이문고 이외의 귀중서

1. 머리말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가와이문고는 조선학 연구자 사이에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가와이문고 자료는 크게 조선본(간본 및 필사본), 고문서, 육의전(六矣廛)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廛)이 필요하며, 그 상점은 당연히 여러 영역에 걸친다. 그 점포 종류는 37종, 또는 46종 등이라고도 하는데, 그중에서 나라의 役을 담당하여 규모가 큰 별로(別格)의 육전(六廛)을 육의전이라고 한다. 이 육의전은 수도 한양의 중심가인 종로에 있는데, 『萬機要覽』「財用篇 五」에 근거하자면 면전(綿

* 본 논문은 첨부한 일문(日文) 논문의 한국어 번역임.
** 일본 후쿠야마대학(富山大學) 명예교수・레이타쿠대학(麗澤大學) 객원교수.

廛, 중국산 견직물), 면포전(綿布廛, 조선산 면포・은), 면주전(綿紬廛, 조선산 견직물),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해산물),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으로, 이들 육의전의 성책문서(成冊文書)가 가와이문고에 전한다. 시대적으로는 19세기 후반부이면서도 조선조 상점자료는 한국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가와이문고의 이 자료는 근래 한국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어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 내용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나의 얕은 견문으로 보자면, 이헌창(李憲昶) 편『조선후기 재정과 시장』[1]에 수록된 스가와 히데노리(須川英德)의「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문고 소장 면주전문서를 중심으로」, Owen Miller의「시전-국가 간의 교역과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면주전을 중심으로」의 두 논문과『韓國朝鮮文化硏究』제15호에 수록된 스가와 히데노리의「朝鮮朝後期における市廛と国家財政—河合文庫所蔵の綿紬廛文書を手掛りに」[2] 등의 논문이 있다.

이 자료는 당시의 상태로 생각해보자면, 고물상 앞에 층층이 쌓여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하는 채 방치되어 있던 것을 가와이 박사가 주목하여, 당신의 연구분야인 조선경제사에 관계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해서 구입했던 것이 틀림없다. 만일 가와이 박사의 눈길이 닿지 않았더라면 재생지로 전환되어 영구히 실전되었을 것이 분명하니, 박사의 혜안에 다시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협력에 의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와이문고의 조사를 완료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측의 진지한 노력에 힘입은 점이 많아, 이하의 목록으로써 결실을 맺었다.『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 한국고서목록』[3]과『京都大学附属図書館河合文庫韓国古書目録』[4]이

1) 이헌창 편,『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0.
2) 須川英德,「朝鮮朝後期における市廛と国家財政—河合文庫所蔵の綿紬廛文書を手掛りに」,『韓國朝鮮文化硏究』第15號, 東京大學 人文社會系硏究科 韓國朝鮮文化硏究室, 2016.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일본 경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동아시아인문정보학연구센터,『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 한국고서목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4) 高麗大 民族文化硏究院 海外韓國學資料センター・京都大学 人文科学研究所 附属東アジア人文情報学研究センター,『京都大学附属図書館河合文庫韓国古書目録』, 京都大学 人文科学研究所 附属東アジア人文情報学研究センター, 2019.

그것인데, 후자는 대부분 전자의 일본어 번역판이다.

자료적 가치로 보자면, 육의전 자료는 유례가 없어 가장 귀중하다. 조선본(간본 및 필사본) 및 고문서에도 귀중서가 적지 않은데,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 한국고서목록』의 앞부분에 이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개했다.

필자는 1960년에 교토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언어학과에 진학, 1967년에 박사과정을 휴학하고 1년간 한글학회, 2년간 한국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연구원으로 재적, 1970년에 귀국하여 복학했고, 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일본 현존 조선본의 조사와 연구를 담당해 왔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조선본에 대한 관심이 낮아, 조선학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와 관계된 조선본을 조사하는 일은 있어도 전체를 조사하고자 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중국학의 연구자들도 조선본에 눈을 향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조선본 연구에 큰 공적을 남긴 것은 마에마 쿄사쿠(前間恭作, 1868.1.23.-1942.1.2.)이다. 마에마 씨는 쓰시마 출신의 통역관으로서 어학에 능통하여 조선 고어를 독학, 『龍歌古語箋』(1924)이나 『鷄林類事麗言攷』(1925) 등등 조선 고어 연구의 선편을 잡아 높이 평가된다. 그 외에도 어학관계서가 많으나, 조선본에 관해서는 『朝鮮の板本』(1937), 또한 이 분야의 금자탑으로 칭해질 만한 『古鮮冊譜』 3책[5]이 있다. 이 책은 본인이 각지를 답사해서 저술한 것이 아니라 소장한 서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 타 기관 소장 서적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다. 서적 성립의 경위나 판본 식별에 관한 기사가 인용되어 있고, 자료를 공들여 읽어 들였으며, 또한 조선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배경으로 했다. 마에마 씨의 판단 근거가 원문 인용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객관성이 있다. 필자는 이 책으로부터 항상 學恩을 입고 있어, 깊이 감사하고 있다. 마에마 씨에 대해서는 이 책에 첨부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前間先生小傳」[6]과 시라이 쥰(白井順)의 『前間恭作の学問と生涯』[7]에 상세하게 보인다. 또 이와 유사한 책으로 이인영(李仁榮)의 『清芬室書目』[8]이 있는데, 역시

5) 前間恭作, 『古鮮冊譜』 1-3冊, 東洋文庫, 1944, 1956-7.
6) 末松保和, 「前間先生小傳」,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3冊, 東洋文庫, 1957.
7) 白井順, 『前間恭作の学問と生涯』, 風響社, 2015.
8) 李仁榮, 『清芬室書目』, 寶蓮閣, 1968.

본인의 소장 서적에 대해 기술한 책이나, 선본(善本)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기술이 객관적이고 확실하여 조선본 연구의 큰 의지처이다.

전쟁 전의 학자는 영인본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 원본을 이용했다. 따라서 정도의 차는 있으나 자연스럽게 서지학에 능통했다. 또한 전쟁 전에는 서울의 연구자・동호인이 서물동호회(書物同好會)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조선본의 전시회와 연구회를 개최했다. 예를 들어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이마무라 토모(今村鞆), 오오츠카 노보루(大塚鐙), 오쿠다이라 타케히코(奥平武彦), 카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카미오 카즈하루(神尾弋春), 쿠로다 료(黒田亮), 사쿠라이 요시유키(桜井義之),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타가와 고죠(田川孝三),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鄰), 마에마 쿄사쿠, 미키 사카에(三木栄) 씨를 들 수 있는데, 서지학에 통달했다. 전후에는 미키 사카에의 『朝鮮醫書誌』[9]가 있다. 또한 동양문고 연구원 타가와 고죠 씨는 일본 각지의 조선본에 대해 정통했으며, 한편으로 동양문고에 기증된 마에마 쿄사쿠 씨 구장서를 중심으로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録』[10] 제작을 지휘했고, 또 동양문고의 조선 자료 수집에 힘썼다. 타가와 씨는 조선본 서지에 능통했으나, 아쉽게도 책을 남기지는 않았다. 필자는 이들 선학들의 학은에 힘입어 일본에 현존하는 전 조선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도하여, 현재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11] 및 『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12]를 간행했다. 두 책에는 가와이문고본을 포함하여 일본 현존 조선본,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소장 어니스트 메이슨 사토우(Sir Ernest Mason Satow) 구장 조선본, 타이완 고궁도서관(臺灣故宮圖書館) 소장 양쇼우징(楊守敬) 수집 조선본을 수록했다. 추가로 자부(子部), 경부(經部), 보유편(補遺編) 및 도록편(圖錄篇)의 출판을 기획하고 있다.

필자가 일본 현존 조선본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70년 귀국 후로부터이나, 학생인 까닭에 일본 각지의 서적 조사를 위한 여비가 없어, 우선 교토대학을

9) 三木栄, 『朝鮮醫書誌』(增修版), 學術図書刊行會, 1973.
10) 田川孝三,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録』, 東洋文庫, 1939/1979.
11)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1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시작으로 전념했다. 당초 필자가 전공한 조선어학서를 조사할 목적으로 언해서를 찾았으나, 언해서는 수가 적고, 있다 하더라도 19세기의 것이었다. 생각해보자면 원래부터 언해서의 간행은 적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문서(漢文書)가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상을 간본, 필사본을 포함한 전체 조선본으로 설정했다. 하한선을 일단 한국 합방 연도인 1910년으로 삼았다. 뒤에 차례로 판명되었으나, 조선본에는 중국의 일서(逸書)나 계통이 다른 책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조선본은 일본의 학술에 많은 영향을 끼쳐, 중국학에 있어서도 일본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필자는 원래 중국학을 지망해서 대학에 들어온 일이 있어, 중국학과 관련이 있는 점도 알맞았다.

이에 우선 이전의 부속도서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전학도서(全學圖書) 메모 카드 수십만 장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2년 가까이 들여 전부 열람했다. 동시에 도서관과 문학부 서고의 서가를 차례대로 조사했다. 타 학부에도 약간의 책이 산재해 있었으나, 대부분 상기한 두 곳에 전념했다.

그 당시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이전의 일로,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적어졌으니, 이하 가와이문고본을 중심으로 당시를 돌아보고자 한다.

2.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박사

가와이문고는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1872.11.-1918.10.12.)가 수집한 일대 조선 자료군이다.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에 대해서는『朝鮮學報』제62집에 형님인 임학박사(林學博士) 가와이 시타로(河合鉀太郎) 씨가 저술에 관계한「文學博士河合弘民小傳」[13]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원래『東洋時報』제241호에 수록되었던 것[14]을 스에마쓰 야스카즈 박사의 배려로 옮겨 실은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가와이문고 조사 완료와 그 목록 간행을 기념해서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서 고려대학교 및 교토대학의 연구자에 의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또 동 대학 백주년시계탑기념관(百周年時計台記念館) 역사전시실 내 기획전시실에

13) 河合鉀太郎,「文學博士河合弘民小伝」,『朝鮮學報』第62輯, 朝鮮學會, 1972.
14) 河合鉀太郎,「文學博士河合弘民小伝」,『東洋時報』第241號, 東洋協會, 1918.

서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가와이문고 소장 귀중사료를 전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문경(金文京) 교수가 상기한 「文學博士河合弘民小傳」을 번역해서 주석을 더한 자료를 배포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글을 참조하면 좋겠다. 가와이 박사는 1872년 11월 나고야(名古屋)에서 탄생, 5형제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맛보면서도 아이이쿠샤(愛育社)의 장학금을 받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에서 사학을 배우고 대학원을 마칠 수 있었다. 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 1906년 동양협회전문학교(東洋協會專門學校: 타쿠쇼쿠대학(拓殖大學)의 전신) 경성분교 주임이 되어 단신으로 서울에 부임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선사를 접하여 그 길을 걷게 되었으나, 우선 조선어를 공부하여 유적을 순회하고 고로(古老)를 찾아다니며 천금을 아끼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 박사는 연구의 대성을 기약했으나 도중에 병에 걸렸는데, 벗들과 형님 시타로 씨는 그 연구가 전해지지 못할까 아쉬워하여 학위논문으로써 엮을 것을 권했다. 박사는 이에 따라 교토제국대학에 논문 「李朝稅制に関する研究」를 제출, 1916년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모교가 아닌 교토제국대학에 제출한 것은 문과대학의 이마니시 류(今西龍) 박사와 연고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박사는 타쿠쇼쿠대학의 강사였으나 1913년부터 1916년까지 (교토대) 문과대학 동양사강좌에서 조선사 담당 강사로서도 근무했었다. 그러나 병이 점점 깊어져서 1918년 세상을 떠났다.

김문경 씨의 주석에 의하면 형님인 임학박사 가와이 시타로 씨는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 교수가 되었다. 타이완의 삼림 개발과 등산철도 건설에 힘을 다해, 아리산(阿里山) 개발의 아버지로 칭해져, 아리산에는 「琴山河合博士旌功碑」[15]가 있다고 한다.

3. 장서 구입 경위

『京都大學附屬図書館六十年史』[16]에 의하면, 가와이 박사가 사망한 이듬해 1919년, 유족으로부터 793부 2,160책을 도서관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이

15) 1933년 건립, 제자(題字)는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비음(碑陰)은 토라오 스즈키(鈴木虎雄)가 짓고 씀.
16) 京都大學附屬図書館 編, 『京都大學附屬図書館六十年史』, 京都大學附屬図書館, 1961.

이상의 상세한 사항은 불명이다. 최근 신무라 이즈루(新村出) 박사의 저서에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신무라 이즈루 박사는 1876년 10월 3일 야마구치현(山口縣) 야마구치시에서 막신(幕臣) 세키구치 타카요시(関口隆吉)의 차남으로 탄생, 부친의 전직인 야마가타현령(山形縣令), 그리고 현직에 있던 야마구치현령에서 '山'자를 뽑아 겹쳐서 '出'이라고 이름했다. 또한 후에 '山'이 겹쳐졌다는 의미로부터 '重山'이라는 호를 지었다. 1889년에 부친이 열차사고로 순직하자, 이에 신무라(新村) 가에 양자로 들어갔다. 후에 제일고등학교(第一高等學校)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진학하여, 우에다 카즈토시(上田萬年) 박사의 강연에 감동 받아 이즈음 언어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듬해 조수(助手), 그 뒤 강사를 거쳐 1904년에 조교수로 승진했으나, 교토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언어학과가 창설되자 1907년 1월에 조교수로 이직했다. 부임하기 전 2년간 독일, 영국, 프랑스에 파견되어 당시 석학의 강연에 참석했다. 1936년 10월 퇴임 시까지 언어학과를 주재하여 제국학사원 회원, 음성학협회 회장, 언어학회 회장, 방언학회 회장 등으로 여러 학회를 인솔해왔다. 이와 같은 학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1956년에 문화훈장이 수여되었다. 그의 연구 분야는 크게 서양의 언어이론을 근거로 한 일본의 역사연구, 기독교 자료연구, 어지・어원(語誌・語源) 연구이나, 문헌학에 조예가 깊어 부임 직후인 1911년부터 퇴임하기까지 25년간 도서관장으로서 선본을 수집하는 등 도서관의 발전에 힘썼다. 또한 시인(歌人)이기도 하여, 단순한 학자를 넘은 문인이라고 칭할 만하다. 저서가 많은데, 그 대상은 인문학 전반에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新村出全集』 15권에 그 저술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무라 박사가 알려진 것은 사전을 통해서이다. 1935년의 『辞苑』을 시작으로 규모나 대상이 다른 12종의 사전이 신무라 박사에 의해 편찬・간행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辞苑』은 1955년에 『広辞苑』으로 크게 증보되어, 그 후 국민적 사전으로서 환영받았다.

그런데, 중산 신무라 박사에게는 가와이 박사의 구장서 구입을 언급한 글 한 편이 있다. 문과대학 기관지 『藝文』에 처음 보이는데, 『典籍叢談』에 다시 수록된 「도서관에 관해 우치다 박사를 회고하다」라는 글이다.[17] 여기에서는

후자에 근거한다. 이 글은 신무라 박사보다 5년 연장자로 같은 문과대학에 소속된 일본 역사경제학의 창시자로도 불리는 우치다 긴조(內田銀蔵, 1872-1919) 박사에 대한 애도문이다. 다소 길기에 그 부분을 소개한다.

> 도서에 관해, 도서관에 관해 그는 公私를 막론하고 큰 흥미를 느꼈다. 교토대학 국사연구실 도서관의 안배는 반 정도 그의 독특한 안(案)을 통하여 가능했던 것으로, 선택, 구입, 정리, 분류, 배열, 서목, 열람, 검색 등의 방법에 새로운 궁리도 상당히 있었으나, 지금 상세히 서술할 겨를은 없다. 수년 전에 우치다 씨의 주장에 따라 문과대학에 도서협동자금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전문학과의 다수에 공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서, 또는 어떠한 전문학과에도 속하지 않아 빠뜨려졌지만 연구에 사용될 만한 도서, 이들 도서 구입을 계획하기 위해 각 학과에서 제정한 도서비에서 약간의 소액을 갹출해 모으고 위원을 설치해서 선택・결정을 하는 형태의 것인데, 이것은 우치다 씨의 제안에 등장했던 것이다. 외국에 주문해서 취입한 꽤 거질의 책도 있다. 그리스・라틴의 고전류, 근대학자의 전집류를 시작으로, 영국・독일 등의 학술잡지 고본(古本)을 갖춘 것과 같은 일도 이 기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종류의 자서류(字書類)도 그중에 있었다. 일본인의 시문집이나 유학자나 동양의 서화론에 관계된 저술이나 신토(神道) 서적류 등도 있었다. 이들은 (도서)협동과 관계된 것이 많았으므로, 연구실에 수장하지 않고 도서관에 비치하게 되었다. 더욱이 외국에서 주문했거나 계획 중인 품목으로서 전쟁 중이기에 도착하지 못한 것, 유보된 것도 적지 않았으나, 이 제도가 실행된 이래 문과에 있어서 연구 자료의 결함이 일부는 보충되었다. 고(故)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의 유서로서 귀중한 조선본 및 조선 고문서 등도 반은 이 제도 덕분에 때마침 구입할 수 있었다. 확정된 제도만큼은 없어, 종전에는 전체로 보았을 때 고가의 서적으로서 선본 컬렉션을 만들어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거치는 식의 일을 하거나 별도로 임시 지출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으나, 위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고는 원만하고 간편하게 운영되게 되어 다행이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치다 씨는 취사선택 과정에 꽤나 떠들썩하여 항상 의론의 중심이 되었다. 주창자로서의 그도 도서관 관리를 담당하는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협동자금위원에 참여해왔으므로, 나는 이 사무를 위해서 그와 절충한 일이 종종 있었다. 그는 이 제도를 주창하기 이전에 이미 대학 부속도서관의 상의회(商議會) 위원으로 임명되어 도서관 전체의 일에 관계했으나, 그간의 소식은 내가 담당하기 이전이므로 잘 알지 못한다.

17) 新村出, 「內田氏の追想」, 『藝文』 1919年 9月號, 京都文學會, 1919; 「図書館に関して內田博士の追想」, 『典籍叢談』, 荻原星文館, 1943에 재수록.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치다 박사는 문과대학의 각 학과에 횡단적(横斷的)으로 필요한 고금동서의 서적을, 각 학과와 교섭하여 자금을 갹출해서 구입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교토제국대학은 아직 초창기로 각 교관이 열의를 보이면서 또한 기본서를 완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윗글 중에 "외국에 주문해서 취득한 꽤 거질의 책도 있었다. 그리스・라틴의 고전류, 근대학자의 전집류를 시작으로 영국・독일 등의 학술잡지의 고본을 갖춘 것과 같은 일도 이 기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종류의 자서류도 그중에 있었다."라고 한 것으로부터 보자면, 초창기에 이미 장래를 내다보고 서적 수집에 힘썼다는 말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고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의 유서로서 귀중한 조선본 및 조선 고문서 등도 반은 이 제도 덕분에 때마침 구입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다. 메이지(明治) 시기, 또는 그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조선본은 연구자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듯하다. 필자가 조선본의 조사를 시작했던 반세기 이전에도 중국학 연구자들은 도서관에서 중국본, 경우에 따라 화각본(和刻本, 일본판본)은 청구하더라도, 조선본을 청구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일본에 많은 조선본이 전해오는 것은 전적으로 서두에 언급한 애서가(愛書家)들 덕택이다. 가와이문고 구입에는 문과대학 교수 이마니시 류 박사의 강력한 주장과 추천이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마니시 박사는 도쿄제국대학에서 조선사를 공부하고, 1933년 평양 서쪽에서 「秥蟬縣碑」를 발견한 이후 조선 고대사 등에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조선본 수집가로서 알려져 있고, 그가 수집한 서적은 텐리도서관(天理図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조선학 전체를 아우르며 귀중본도 많다. 이마니시 박사는 1913년에 교토제국대학에 강사로서 부임했고, 그 이전에는 누차 조선에 조사를 갔으므로 가와이 박사와 알게 될 기회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또한 가와이 박사를 교토제국대학 강사로 초빙한 것도 이마니시 박사였다고 생각된다. 가와이문고의 반은 이 제도의 덕에 구입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 반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혹 도서관에서 나온 것일까. 이러한 공통 분야의 것은 위의 기록과 같이 연구실에 수장하지 않고 도서관에 보관했다고 하므로, 가와이문고 또한 당초부터 도서관에 두었

을 터이다. 필자가 학생이었을 때의 가와이문고는, 후술할 이야기와 같이 구서고에 수장되었는데, 필자가 출납을 위임받아 귀중서열람신청원 등은 내지 않았으므로, 일반 서적이었다. 실제로 가와이문고를 보면, 육의전 자료는 한국에도 없으므로 귀중하지만 조선본(간본 및 필사본), 고문서는 귀중서라고 할 만한 것이 극히 소수이다. 현재 도서관이 개축된 것을 계기로 일괄적으로 귀중서로 지정되었으리라.

4. 가와이문고본의 연구

가와이문고본을 연구에 처음으로 활용한 것은 누구였을까. 필자는 1970년 이후에 조사를 시작했으나, 당시 가와이문고 담당은 서고계의 모리시마 히라쿠(森島啓) 씨로, 40대 후반이었다고 생각한다. 2층의 대출계 안쪽에 계셨다. 가와이문고본은 도서관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구서고에 있었으므로, 조사를 위해 열쇠를 빌리는 등 수고를 끼쳐드린 탓에 친해졌으나, 모리시마 씨로부터 가와이문고를 이용한 연구자의 존재에 대해 들었던 일은 없다. 다만 1965년 6월에 한일조약이 체결되어 양국의 국교가 열려, 그 선행으로 문화재반환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 전하는 조선본은 각각 경위가 다르다. 가와이문고본은 가와이 박사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기로는 가와이 박사가 강화도서고(江華島書庫)에 경찰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넣어 약탈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 한국 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열람 정지가 되었다고 들었다.(모리시마 씨에게 확인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확인하지 못했다.) 가와이문고에는 강화도서고의 장서인도 없으니, 완전히 망언이다. 일본 국내 여러 곳의 조선본 소장처가 한동안 조선본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전해 들었다. 다만, 필자가 조사를 시작했을 즈음에는 이러한 금지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다.

외무성에서는 만일의 반환을 염려해서 전국에 있는 조선 귀중서의 조사와 촬영을 계획, 그 방면에 해박한 동양문고 연구원인 타가와 고죠 박사에게 이를 의뢰했다. 이를 승낙한 타가와 박사는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의 조사를 행

했는데, 그 중심에 가와이문고본이 있었다. 타가와 박사로부터 직접 들은 말로는, 문학부 동양사강좌의 타무라 짓조(田村実造) 교수에게 조선본의 유무를 여쭤본 바, 사학과의 여러 강좌가 있던 진열관(陳列館)의 다락방에 있다고 가르쳐주므로 확인해보니 좀이 심하게 슬었다고 했다. 이것이 현재 전하는 동양사강좌본으로, 이들 서적은 필자가 학생이던 때 이미 문학부 사학과열람실에 이관되었는데, 이것들을 조사할 때에는 책상 위가 종이 가루 투성이가 되어 걸레로 책상을 닦아가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때로는 은색의 좀벌레나 그 유충인 듯한 노란색 번데기가 몇 마리씩 나왔다. 이 동양사강좌본 일이 외무성의 위탁과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타가와 박사의 전공은 조선조 경제사로, 고문서나 육의전 문서가 이에 관계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사진으로 촬영되었다. 필자가 학생이던 즈음, 고문서는 마이크로리더로 볼 수 있었는데, 그 필름은 동양문고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들었다. 오구니(小国) 씨에 따르면, 타가와 박사를 중심으로 가와이문고 목록이 작성된다고 했으나, 결국은 성사되지 못하고 끝난 듯하다. 이 오구니 켄이치(小国健一) 씨는 상기한 모리시마 씨의 상사로, 모리시마 씨보다 약간 젊었다고 기억한다. 오구니 씨는 문학부와 인문과학연구소에서도 근무하고 있어서 필자와는 접촉도 많았다. 매우 성실하고 근면정직한 분이었다. 필자가 가와이문고본을 조사할 때, 펜으로 쓴 가로쓰기 막대기 형태의 목록을 복사해서 이용했는데, 그 목록은 오구니 씨가 작성하신 것이었다. 오구니 씨에 의하면, 가끔 가와이문고를 보러 오는 연구자도 있음에도 손으로 쓴 도서카드밖에 없으므로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를 베껴 막대기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그 뒤의 연구자들은 모두 이것을 복사하거나 해서 이용해왔다. 필자도 그중 한 사람으로, 원래의 도서카드에 조사 누락이 있었던 것인지 막대기 목록에 다소간 빠진 부분이 있었다.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필자가 도서관에 있을 때 우연히 하와이대학에서 온 한국인 교수, 또 전날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뵈었던 모 교수가 반세기 가까이 전에 교토대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인사를 하셨으나 필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분들이 가와이문고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가와이문고 이용자는 대부분 역사학자이기에 필자의 눈이 닿지 않는 역사학회에서 이뤄진 발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나마 알고 있는 정도로는, 재일 연구자인 안병태(安秉珆, 1931-1976) 씨가 계신다. 그 논문으로 「商品経済の発展と私商―18世紀を中心として―」[18]과 「田畓典當・放売文記の研究―土地改革の前提條件形成によせて―」[19]가 있다.[20] 하지만 두 논문에는 '京大所蔵朝鮮文書' 등으로 언급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문서의 인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재야의 연구자인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1946) 씨는 저서 『雜攷』[21]에서 洪武 연간의 노예매매문서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가와이문고에 있는 것으로, 가와이 박사가 서울에 거주할 때에 빌려서 베낀 것으로 생각된다. 아유카이 씨는 센다이 다테한(仙台伊達藩)의 필두가노(筆頭家老, 다이묘 휘하 가신의 우두머리) 가문으로, 게센누마(気仙沼)에 세거했으며, 문학가이자 시인인 오치아이 나오부미(落合直文)의 동생이다.

앞서 기록한 타가와 고죠 박사(1909-1988)는 경성제국대학 문리과대학 사학과에서 조선사를 전공, 조선의 역사와 문헌에 널리 능통한 분이었다. 도쿄대학 문학부 전임강사, 동양문고 전임연구원으로서 여러 후학들을 지도하고, 또 동양문고 조선 자료를 충실하게 하는 데 힘을 다했다. 박사의 대표 저작으로는 『李朝貢納制の研究』[22]가 있다.

필자는 유학 당시 중기조선어를 배워, 향가와 이두 등의 독특한 한자사용법에 관심을 품어왔다. 귀국 후에는 가와이문고 중의 고문서에 이용된 이두를 조사했다. 「河合文書の研究―文書形式・吏読・俗語を中心として―」[23]를 썼는데, 최종교정 단계에 교토대 도서관에 왔다가 타가와 박사로부터 홍무 연

18) 安秉珆, 「商品経済の発展と私商―18世紀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5集, 朝鮮史研究會, 1968.
19) 安秉珆, 「田畓典当・放売文記の研究―土地改革の前提条件形成によせて―」, 『社會科學研究年報』 第1號,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70.
20) 두 논문 모두 안병태, 『朝鮮社會の構造と日本帝國主義』, 龍渓書舎, 1977에 수록되어 있다.
21) 鮎貝房之進, 『雜攷』 第6輯 下編, 京城, 1934.
22)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23) 藤本幸夫, 「河合文書の研究―文書形式・吏読・俗語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第60輯, 朝鮮學會, 1971.

간의 고문서를 시작으로 오래된 연대의 것에는 위조문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 정정은 불가능하여, 논문 말미에 그 뜻을 첨부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타가와 박사의 지적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당시 타가와 박사는 종종 도서관에 조사차 오셔서, 함께 배석한 일도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에 텐리대학 명예교수 히라키 마코토(平木実) 박사가 참석해 주셨고, 한국의 최승희 박사가 가와이문고 고문서 관계 목록을 발표하셔서, 그중 위조문서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주셔서 가르침을 받았다.

5. 가와이문고의 소장처

현재의 도서관은 1983년 10월에 준공되었는데, 필자의 학생 시절 도서관은 1948년의 것으로, 당시 가와이문고본은 구서고에 있었다. 신도서관 완공과 함께 가와이문고는 구서고에서 이관되었다. 문학부로부터 경제학부의 앞을 지나 도서관 남쪽에 난 길에서 서쪽으로 간 뒤, 손죠도(尊攘堂)의 남측을 조금 내려가 다시 다섯 단 정도의 돌계단을 내려가면 히가시오지(東大路)였다. 지금은 신설된 박물관을 향해 길이 도중에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손죠도에는 메이지 유신의 지사(志士)들의 서화가 소장되어있다. 한두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弥二郎)의 글을 본 기억이 있다. 손죠도의 남쪽에 길을 사이에 두고, 입학한 1960년 당시에는 보험진료소가 있었다. 보험진료소의 서쪽, 히가시오지와의 사이에 있는 언덕 위에 화장실이 있어, 거기에서 소변검사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창문에서 시선을 내려보면 히가시오지에 전차가 달리고 있었다. 그 북측, 현재의 박물관이 있는 위치, 히가시오지와 평행하는 언덕 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와조의 2층 창고 세 동이 이어져 있었다. 중앙통로의 양쪽으로 서가가 비치되어 있었다. 세 동은 전체 20미터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안으로 이어져 있어 창고 사이에는 판자가 걸쳐져 있었다. 여기는 구서고라고 불려, 평생 이용할 일 없는 책이 여기에 가장되어있었다. 아마도 메이지 시대의 건물로, 서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리라. 필자보다 10년 정도 연하의 국사학과 조수(助手)였던 분은 여기

에서 때때로 자료를 가지러 왔는데, 그때마다 벌레에 물려 곤란해했다. 필자는 여러 차례 다니며 오랫동안 붙어있었음에도 그러한 경험은 없다. 세 동의 남측 제1동 동쪽에 입구가 있어, 거기에서 열쇠를 열면 가장 북쪽인 제3동의 2층에 가와이문고본이 있었다.

필자는 가와이문고본을 열람할 때는 우선 모리시마 씨에게 여쭈면, 모리시마 씨는 열쇠를 가지고 둘이서 서고에 갔다. 도서관의 남측에 있던 교육학부의 교사와 보험진료소(후에 교육학부 도서실로 변경) 사이를 북쪽으로 빠져나가면 서쪽에 구서고가 있었다. 여름에는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철제문을 열고 전기등을 켜고 북쪽 깊숙이 있는 제3동 2층에서 책을 꺼내와 둘이서 가지고 돌아왔다. 이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신뢰를 얻어, 열쇠를 받아 혼자서 책을 출납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 혼자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만큼을, 공사할 때 모래나 자갈을 운반하는 데 쓰는 1륜 손수레를 빌려 제3동 1층까지 끌고 들어가 싣고 도서관으로 가지고 돌아갔다. 반납도 혼자서 마찬가지로 했다. 비 올 때는 열람은 하지 않았지만, 흐린 날에는 비닐 보자기를 빌려서 가랑비가 내리면 그것으로 덮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책의 출납에는 1시간 정도가 필요했다. 구서고에 서적을 찾으러 온 직원과 만난 것은 필자의 기억으로는 몇 회 정도였고, 몇 시간이고 혼자서 서고에 들락거렸다.

6. 가와이문고 이외의 귀중서

조선본 귀중서는 이미 도서관에서 지정했던 것도 있고, 필자가 서고 내에서 발견해서 귀중서 지정을 신청한 것도 2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경오자인본(庚午字印本)『歷代兵要』13권(闕卷三), 12책(零本)이다. 경오자는 세종의 왕자 안평대군의 휘호자(揮毫字)를 기초로 세종 32년 경오년(1450)에 주조한 동활자인데, 안평대군이 단종 원년 계유(1453)에 모반죄로 사형당해서 그 활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사용 기간은 겨우 3년으로 짧아서 경오자인본으로는 3종이 전해지고 있었을 뿐으로, 이것이 네 번째 서적이 되었다. 한 책이 빠진 것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12책이 새끼줄로 묶여

옆으로 쌓여있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이에 대해서는 「庚午字本『歷代兵要』攷」[24]에서 소개했다.

그 두 번째는 『金石集帖』 218책이다. 金在魯(1682-1759)가 편찬한 것일까 추측되지만, 비문은 신라로부터 순조 시기까지 이르므로 후대 사람의 追補가 있다. 이 방대한 일대 비문 집성에는 1,877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피전자(被傳者), 찬자, 휘호자(揮毫者), 전액자(篆額者), 수비자(樹碑者)는 모두 이름난 사람들이다. 상세한 점은 상기한 졸저를 참조하기를 바라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같은 세트가 되는 권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1책이 있다. 필자는 1970년대 초에 도서관 지하 2층 철제계단 아래의 공간에서 30책 정도씩 쌓아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위에 직접 쌓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래 부분은 수분을 머금어 부풀어 올라 상당히 파손되어 있었다. 이에 모리시마 씨에게 의뢰하여 목제 받침대를 구입해서 함께 다시 쌓았다. 한눈에 귀중한 것이라고 직감했으나 여러 목록을 뒤져보아도 이 책은 달리 확인이 불가능했다. 후에 필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같은 세트가 되는 1책을 확인했다. 당시 관장은 히라오카 타케오(平岡武夫)였는데, 『금석집첩』과 『역대병요』를 귀중서로 신청하자 승인되었다. 이 『금석집첩』에 대해서는 누가 제작에 관여했는지 미상이지만, 역시 가로쓰기의 막대기 목록이 있어 필자는 이를 따라 순차적으로 열람했다. 고려대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219책이라고 하는데, 1책을 놓쳤던 듯하다.

이번 가와이문고 목록의 완성에 의해 연구상의 큰 편의를 얻게 되었다. 더욱더 연구가 발전하기를 바라며, 또한 작성에 힘을 다한 고려대학교 및 교토대학의 협력을 기리고 또 치하하고자 한다.

24) 藤本幸夫, 「庚午字本『歷代兵要』攷」, 『朝鮮學報』 第119・120合輯, 1986.

■ 日文本

河合文庫概観

前言

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河合文庫は、朝鮮学研究者の間では早くから知られている。河合文庫資料は大きく朝鮮本(刊本及び鈔本)・古文書・六矣廛資料に分けられる。人々が生活を送るためには必要な物品を売る商店(廛)が必要で、その商店は当然ながら多岐多様に亙る。その廛数は三十七廛或いは四十六廛などとも言われるが、その内国役を担い規模の大きい別格の六廛を六矣廛という。この六矣廛は首都漢陽の中心街鍾路にあり、『萬機要覧』(材用篇 五)に據れば、綿(中国産絹織物)廛・綿布(朝鮮産綿布・銀)廛・綿紬(朝鮮産絹織物)廛・内外魚物(海産物)廛・紙廛・苧布廛であり、これらの六廛の成冊文書が河合文庫に伝わる。時代的には十九世紀後半のものであるが、朝鮮朝商店資料は韓国にも殆ど残存しないとされ、河合文庫のこの資料は近年韓国の研究者の注目を引いて研究は盛んになりつつあるが、資料内容の解釈には困難が伴うようである。管見によれば、李憲昶編『朝鮮後期財政と市場』(ソウル大学校出版文化院, 2010) 所収の須川英徳「市廛商人と国家財政 河合文庫所蔵の綿紬廛文書を中心にして」・Owen Miller「市廛―国家間の取引と十九世紀後半朝鮮の経済危機 綿紬廛を中心にして」の二論文、『韓国朝鮮文化研究』第15号(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韓国朝鮮文化研究室, 2016)所収の須川英徳「朝鮮朝後期における市廛と国家財政―河合文庫所蔵の綿紬廛文書を手掛りに―」の論文等がある。

この資料は当時のありようから考えると、古物商の店頭に積み重ねられ、何人の注意をも惹かぬままに放置されていたものに河合博士が目を留め、御自分の研究分野である朝鮮経済史に関わる重要な資料と判断して購入されたのに相違ない。若し河合博士の目に留まらなければ、再生紙に廻されて永久に失われたに相違なく、博士の炯眼に改めて敬意を表さざるを得ない。

この度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と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海外韓国学資料セン

ターの協力によって、平成二十七年(2015)から同三十年(2018)に亙る河合文庫の調査が完了した。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側の真摯な努力に負うところが多いが、その成果は以下の目録として結実した。『日本京都大学附属図書館河合文庫韓国古書目録』(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 2019)及び『京都大学附属図書館河合文庫韓国古書目録』(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附属東アジア人文情報学研究センター, 2019)であるが、後者は前者のほぼ日本語翻訳版である。

資料的な価値からすれば、六矣廛資料が他に類例のないため最も貴重である。朝鮮本(刊本及び鈔本)及び古文書には貴重書は少なく、前者目録の巻首にそれらは写真入りで紹介されている。

筆者は昭和三十五年(1960)に京都大学文学部に入学して言語学科に進み、昭和四十二年(1967)に博士課程を休学して一年間ハングル学会、二年間韓国ソウル大学校文理科大学に研究員として在籍、四十五年(1970)に帰国して復学、それ以降今日まで日本現存朝鮮本の調査と研究に当ってきた。

往時は一般的に朝鮮本に対する関心は低く、朝鮮学研究者が自己の研究に関連する朝鮮本を調査することはあっても、全体を調査しようとする人はいなかった。また中国学の研究者でも、朝鮮本に目を向ける人は極稀であった。

朝鮮本の研究で大きな功績を残されたのは、前間恭作氏(1868.1.23-1942.1.2)である。前間氏は対馬出身の通訳官で語学に堪能、朝鮮古語は独習されたようで、『龍歌古語箋』(1924)や『鶏林類事麗言攷』(1925)等々は朝鮮古語研究の先鞭をつけたものであり、高く評価される。その他にも語学関係書は多いが、朝鮮本に関しては、『朝鮮の板本』(1937)、更には斯界の金字塔とも称すべき『古鮮冊譜』三冊(東洋文庫, 1944・1956・1957)がある。この書はご自身が各地を踏査して著されたものではなく、御所蔵書を中心に研究されたものであり、他機関の所蔵書については引用されている。書籍成立の経緯や版本識別に関する記事は引用されており、資料を丹念に読み込んでおられ、且つ朝鮮学に対する深い造詣が背景となっている。前間氏の判断の根拠が原文引用という形で示されているので、客観性がある。筆者は同書から常に学恩を蒙っており、深謝して措かざるところである。前間氏については同上書に附された末松保和「前間先生小伝」と白井順『前間恭作

の学問と生涯』(風響社, 2015)に詳しい。またそれに類似した書としては李仁栄『清芬室書目』(宝蓮閣, 1968)があり、やはり御自分の所蔵書について記述された書であるが、善本が多く含まれ、記述は客観的で確実、朝鮮本研究の大きな拠り所である。

戦前の学者は影印本の普及も充分でなかったため、殆どが原本を利用していた。したがって程度の差はあれ、自然と書誌学に通じていた。また戦前にはソウルで研究者・同好者が書物同好会を組織し、定期的に朝鮮本の展示会や研究会をしていた。例えば鮎貝房之進・今村鞆・大塚鐙・奥平武彦・金澤庄三郎・神尾弋春・黒田亮・桜井義之・幣原坦・末松保和・田川孝三・中村栄孝・藤田亮策・藤塚鄰・前間恭作・三木栄各氏が挙げられ、書誌に通じておられた。戦後には三木栄『朝鮮医書誌』(増修版 学術図書刊行会 1973)がある。また東洋文庫研究員田川孝三氏は日本各地の朝鮮本について精通しておられ、他方東洋文庫に寄贈された前間恭作氏旧蔵書を中心とする『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録』(東洋文庫, 1939; 増補版, 1979)作製を指導され、又東洋文庫の朝鮮資料収集に尽力された。田川氏は朝鮮本書誌に能通しておられたが、残念ながら専書を残されなかった。筆者はこれら先学の学恩を蒙りつつ、日本に現存する全朝鮮本の悉皆調査を試み、現在『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6)及び『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東国大学校出版部, 2018)を刊行し、両書には河合文庫本を含む日本現存朝鮮本・大英図書館所蔵アーネスト・サトウ旧蔵朝鮮本・台湾故宮図書館所蔵楊守敬所蒐朝鮮本を収録する。更に子部・経部・補遺編及び図録篇の出版を企図している。

筆者が日本現存朝鮮本研究を始めたのは昭和四十五年(1970)帰国後からであるが、学生のこととて日本各地訪書の旅費もなく、先ず京都大学から始めることとした。当初筆者が専攻する朝鮮語学書の調査を目指して諺解書を求めたが、諺解書は少なく、あっても十九世紀のものであった。考えてみると、元々諺解書の刊行は少なく、全体的に見ると漢文書が九割以上を占める。そこで対象を刊本・鈔本を含む全朝鮮本とした。下限を一応韓国合邦年の1910年とした。後に次第に判ってきたのであるが、朝鮮本には中国逸書や系統の異なる書が伝わ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た朝鮮本は日本の学術に多大な影響を与えており、中国学にも日本学にも

極めて重要な分野である。筆者は元々中国学を志望して大学に入ったこともあり、中国学と関連を有するのも望ましかった。

そこで先ず以前の附属図書館入り口に備え付けられた全学図書の手書きカード数十万枚を、昼休みを利用して二年近くかけて看了した。同時に図書館と文学部の書庫の棚を逐一調査した。他学部にも若干散在していたが、殆ど上記二ヶ所に尽きる。

その当時、既に今から半世紀以前のことで、当時のことを知る人も少なくなり、以下河合文庫本を中心に往時を顧みたいと思う。

一. 河合弘民博士

河合文庫は河合弘民博士(1872.11-1918.10.12)蒐集にかかる一大朝鮮資料群である。河合弘民博士については、『朝鮮学報』第62輯(朝鮮学会, 1972)に令兄林学博士河合鉄太郎氏撰に係る「文学博士河合弘民小伝」が収録されている。これは元来『東洋時報』241号(東洋協会, 1918)に収録されていたものを、末松保和博士の御配慮で転載されたものである。

平成三十一年(2019)年二月二十一日河合文庫調査完了とその目録刊行を紀念して、京都大学附属図書館で高麗大学校及び京都大学の研究者による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た同大学百周年時計台記念館歴史展示室内企画展示室で二月十九日—三月三日の間、河合文庫所蔵貴重資料が展示された。そのシンポジウムに於いて金文京教授が上記「文学博士河合弘民小伝」を翻訳し、註を加えられた資料が配布された。詳しくは上文を参照されたいが、河合博士は明治五年(1872)十一月名古屋で生を享け、五兄弟であった。家は貧しく、名状できぬほどの労苦を嘗めながらも愛育社の奨学金を得て、東京帝国大学文科大学で史学を学び、大学院を畢えられた。中学校の校長などを経、明治三十九年(1906)東洋協会専門学校(拓殖大学の前身)京城分校主任となり、単身ソウルに赴任した。そこで初めて朝鮮史に接し、その道に進むことになったが、先ず朝鮮語を修め、旧跡を巡り、古老に尋ね、千金を惜しまず資料を収集されたと云う。博士は研究の大成を期されたが、道半ばに

して病に罹り、友人や令兄鉾太郎氏はその研究の不伝を懼れて、学位論文として纏めることを勧めた。博士はそれに従って京都帝国大学に論文「李朝税制に関する研究」を提出し、大正5年(1916)文学博士が授与された。母校でなく京都帝国大学に提出されたのは、文科大学の今西龍博士との縁故の故であろう。博士は拓殖大学の講師であったが、大正二年(1913)から五年(1916)文科大学東洋史講座で朝鮮史担当講師も勤められた。病愈愈深まり、大正七年(1918)十月十二日逝去された。

令兄林学博士河合鉾太郎氏は、金氏の註によれば、東京帝国大学農科大学卒業後、同大学教授となられた。台湾の森林開発と登山鉄道建設に尽力し、阿里山開発の父と称され、阿里山には「琴山河合博士旌功碑」(1933建 題字西田幾多郎 碑陰鈴木虎雄撰及書)があると云う。

二. 蔵書購入経緯

『京都大学附属図書館六十年史』(京都大学附属図書館, 1961)によれば、河合博士逝去の翌大正八年(1919)御遺族から、793部2160冊が図書館に購入されたと云う。それ以上の詳細は不明である。最近新村出博士の著書の中にそれに関連する記事のあることが判ったので、ここに紹介したい。

新村出博士は、明治九年(1876)十月四日山口県山口市で幕臣関口隆吉の次男として誕生、父君が前任の山形県令、そして現任の山口県令から「山」字を採り重ねて「出」と命名された。また後に「山」を重ねるところから「重山」と号した。明治二十二年(1889)父君が列車事故で殉職され、それを機に新村家の養子となった。後第一高等学校を経て、東京帝国大学文科大学に進み、上田万年博士の講演に感動してその許で言語学を専攻することとなった。大学院に進学したが翌年に助手、その後講師を経て明治三十七年(1904)助教授に昇任したが、京都帝国大学文科大学に言語学科が創設されるや、同四十年(1907)一月に助教授として転任した。着任に先立って二年間ドイツ・イギリス・フランスに派遣され、当時の碩学の講筵に列なった。昭和十一年(1936)十月退官時まで言語学科を主宰し、帝国学士院会員・音声学協会会長・言語学会会長・方言学会会長等々として、諸学会を牽引してきた。

その学術に対する貢献を讃え、昭和三十一年(1956)には文化勲章が授与されている。その研究分野は大きく西洋の言語理論を踏まえた日本語の歴史研究・キリシタン資料研究・語誌語源研究であるが、文献学に造詣が深く、赴任直後の明治四十四年(1911)から退官に至る二十五年間図書館長として善本を蒐集する等、図書館の発展に努めた。また歌人でもあり、単なる学者を超越した文人と称すべきであろう。その著書は多く、対象は人文学全般に及ぶ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く、『新村出全集』十五巻がその著述の殆どを収めている。しかし一般に新村博士の知られるのは、辞書を通じてである。昭和十年(1935)の『辞苑』を皮切りに規模や対象を異にするものの、十二種類の辞書が新村博士によって編纂刊行されている。就中『辞苑』は昭和三十年(1955)に大きく飛躍して『広辞苑』となり、その後国民的辞書として歓迎を受けている。

さて、その重山新村博士に河合博士旧蔵書購入に言及した一文がある。それは文科大学の機関紙『藝文』(大正八年(1919)九月)に初出で、『典籍叢談』(荻原星文館1943)に再録されている「図書館に関して内田博士の追想」(原題「内田氏の追想」)なる一文である。今後者に拠るが、その文は、新村博士より五歳年長で同じ文科大学に属し、日本歴史経済学の草分けといわれる内田銀蔵博士(1872-1919)に対する哀悼文である。多少長きに亙るが、その部分を紹介する。

図書のこと図書館のことには氏は公私共に多大の興味を感じられた。京都大学の国史研究室の図書館の按配といふものは半分は氏の独特の案に由つて出来たもので、選択、購入、整理、分類、配列、書目、閲覧、検索等の方法に新工夫も随分あつたが、今は細説する暇はない。又数年前より内田氏の主唱によって文科大学に図書協同資金制度とでもいふ制度が設けられた。それは、専門学科の多数に共通な関係のある図書、又はどの専門学科にも属せず見逃がされがちであるが而も研究の用に立つべき図書、これらの図書の購入を計るため、各学科所定の図書費より若干の少額を醵出して置いて、委員を設けて選択決定をする様なことにしたのであるが、右は内田氏の提案に出でたものであつた。随分外国に注文して取寄せた大部の書もある。希臘拉甸の古典類近代学者の全集類をはじめ、英独等の学術雑

誌の古本を揃へたりすることも、その企てに含まれてゐた。種々の字書類もその中にあつた。日本人の詩文集とか儒学書とか東洋の書画論に関する著述とか、神道書類とか云う類もある。これらは、協同関係のものが多いから、研究室に収めずして図書館に備付けることにしてある。尚外国注文又は其計画中のもので、戦時中なので未着のもの、差控へたものなども少なくないが、この制度実行以来、文科に於ける研究資料の欠陥の一部は充たされた。故河合弘民博士の遺書で貴重な朝鮮本及び朝鮮古文書などの購入も、半ばはこの制度の為に都合よく購入することが出来た。定まつた制度こそ無かつたが、従前に於ても、一部一まとめ高価な書物なり、善本のコレクションなりが出て、購入せんとした場合には、合議の上に、あゝいふやり方をしたり、別途臨時の支出を仰いだりしたこともあつたのであるが、如上の制度が出来てからは円満簡便に運ぶやうになつたのは幸いであつた。さういふ場合にも、内田氏は取捨選択に随分やかましく、常に議論の中心を作つてゐた。主唱者としての氏と、図書館の管理に任ずる予とは、終始この協同資金委員に列してゐたから、予はこの事務の為にも氏と折衝したことが度々であつた。氏は此制度主唱以前に於て、既に大学附属図書館の商議会委員を命ぜられて、図書館全体の事に関係をもたれたのであるが、その間の消息は自分は与かり知らなかつた以前であるから能くわからない。

ここで判ることは、内田博士は文科大学の各学科に横断的に必要な古今東西書籍を、各学科に働きかけて、資金を醵金しあって購入するという制度を作られたことである。当時京都帝国大学は未だ創設期で各教官の意気込み、また基本書を完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義務感があったと思われる。上文中に「随分外国に注文して取寄せた大部の書もある。希臘拉甸の古典類・近代学者の全集類をはじめ、英独等の学術雑誌の古本を揃へたりすることも、その企てに含まれてゐた。種々の字書類もその中にあつた。」とあることからすると、創設期に既に将来を見通して蒐書に努めるという、具眼の士の多かったことが窺われる。

「故河合弘民博士の遺書で貴重な朝鮮本及び朝鮮古文書などの購入も、半ばはこの制度の為に都合よく購入することが出来た。」とある。明治期或いはそれ以降も一

般には朝鮮本は研究者の注目を引かなかったようである。筆者が朝鮮本の調査を始めた半世紀以前でも、中国学研究者たちは、図書館で中国本、場合によっては和刻本を請求しても、朝鮮本に及ぶ人はいなかったように記憶する。現在日本に多くの朝鮮本が伝存するのは、偏に冒頭に挙げたような愛書家のお蔭である。河合文庫購入には文科大学教授今西龍博士(1875-1932)の強力な主張と推輓があったと思われる。今西博士は東京帝国大学で朝鮮史を修め、大正二年(1933)には平壌西方から秥蝉県碑を発見し、その後朝鮮古代史等に多大なる貢献をされた。また朝鮮本蒐集家としても知られ、その蒐集書は天理図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が、内容は朝鮮学全体に亙り、貴重本も多い。今西博士は大正二年(1913)に京都帝国大学に講師として赴任しておられ、それ以前屢々朝鮮に調査に行っておられるので、河合博士と知り合う機会もあったに違いない。また河合博士を京都帝国大学講師に招聘したのも今西博士であったと思われる。河合文庫の半はこの制度のお蔭で購入したとあるが、その余の半は何処から出たのであろうか。或いは図書館からか。このような共通のものは上記にある如く、研究室に収めずに図書館に蔵したというから、河合文庫も当初から図書館に置かれたのであろう。筆者の学生時代河合文庫は後述の如く旧書庫に収蔵され、筆者に出し入れが委ねられ、貴重書閲覧願などは出していないので、普通書であった。実際河合文庫を見ると、六矣廛資料は韓国にもないため貴重であるが、朝鮮本(刊本及び鈔本)・古文書に於いては貴重書というべきものは極少数である。現在の図書館に改築されたのを契機に一括貴重書に指定されたのであろう。

三. 河合文庫本の研究

河合文庫本を研究に始めて利用したのは誰であったのか。筆者は昭和45年(1970)以降に調査を始めたが、当時河合文庫担当は書庫係の森島啓氏で四十代後半であられたと思う。２階の貸し出し係の奥にいらっしゃった。河合文庫本は図書館から百メートルほど離れた旧書庫にあったため、調査のたびに鍵を借りる等ご面倒をおかけしたため親しくなったが、森島氏から河合文庫を利用する研究者の存

在について聞かされたことは無かった。ただ昭和四十年(1965)六月に日韓条約が締結され、両国の国交が開かれたが、それに先立って文化財返還という問題があった。日本に伝存する朝鮮本には、それぞれに異なった経緯がある。河合文庫本は河合博士が個人的に購入されたものであるにも拘らず、聞くところによれば、韓国では河合博士が江華島書庫に警察権力を用いて押し入り掠奪したという風評があり、韓国側から返還を要求されるという危惧があるため、一時閲覧停止になったと聞く。(森島氏に確認すればよかったが、未確認)河合文庫本には江華島書庫の印もなく、全くの妄言である。日本国内諸所の朝鮮本所蔵所が、一時朝鮮本の閲覧を禁じたと聞き及んでいる。但し筆者が調査始めた頃には、その禁は既に解けていた。

外務省では万一の返還を危惧して全国にある朝鮮貴重書の調査と撮影を計り、その方面に詳しい東洋文庫研究員の田川孝三博士にそれを依頼した。それを承けた田川博士の京都大学附属図書館の調査が行われたが、その中心は河合文庫本であった。田川博士からの直話では、文学部東洋史講座田村実造教授に朝鮮本の有無を伺った所、史学科諸講座のあった陳列館の屋根裏にあると教えられ、拝見すると虫食いが甚だしかったという。これが現在伝わる東洋史講座本で、それらの書は筆者が学生時代既に文学部史学科閲覧室に移されていたが、それらを調査した時には机の上が紙の粉だらけになり、雑巾で机を拭きつつ調査をしなければならず、また時には銀色の紙魚やその幼虫と思われる黄色い蛹が幾匹も出てきた。この東洋史講座本の件が外務省の委託と関係するのか否やは、確かでない。

田川博士の御専門は朝鮮朝経済史であり、古文書や六矣廛文書がそれに関わることもあってかと思うが、全て写真に撮られた。筆者が学生の頃古文書はマイクロリーダで見られたが、そのフィルムは東洋文庫撮影のものと聞いた。小国氏によれば、田川博士を中心にして河合文庫目録が作成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が、結局は出来ず終いになったようである。その小国健一氏は上記森島氏の上司に当たり、森島氏よりややお若かったと思う。小国氏は文学部や人文科学研究所でも勤務されたので、筆者とは接触も多かった。極めて真面目で謹直な方であった。筆者が河合文庫本を調査するに当って、ペン書きの横書き棒目録をコピーして利用し

たが、その目録は小国氏作成に係るものであった。小国氏によれば、時々河合文庫を見に来る研究者もおられるが、手書きの図書カードしかないので、研究者に便宜を供するために昼休みを利用して、それを書き写して棒目録を作られたとのことであった。その後の研究者は皆それをコピーしたりして利用してきた。筆者もその一人であるが、元の図書カードに調査漏れがあったのか、棒目録には少なからざる疎漏があった。利用者はそれほど多くはなかったと思うが、筆者が図書館にいるときに偶然ハワイ大学からの韓国人教授、また先日ソウル大学でお目にかかった某教授は、半世紀近く前に京大図書館でお世話になったと御挨拶下さったが、筆者はすっかり忘れていた。その方々が河合文庫について論文を発表されたか否やについては知らない。

河合文庫利用者は殆ど歴史学者であるため、筆者の目の届かない歴史学会での発表については殆ど知るところがない。管見に入ったところでは、在日の研究者安秉珆氏(1931-1976)がおられる。その論文として「商品経済の発展と私商―一八世紀を中心とし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5, 1968)と「田（水+田）典当・放売文記の研究―土地改革の前提条件形成によせて―」(『社会科学研究年報』1, 龍谷大学, 1970)（共に安秉珆『朝鮮社会の構造と日本帝国主義』(龍渓書舎, 1977)に収録）がある。しかし両論文では、「京大所蔵朝鮮文書」などと言及されるのみで、具体的な文書の引用は見受けられない。

ところで在野の研究者鮎貝房之進氏(1864-1946)は、著書『雑攷』6下(京城, 1934)で洪武年間の奴隷売買文書に言及しておられる。この文書は河合文庫にあるものであるが、河合博士ソウル在住時に借用して書き写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鮎貝氏は仙台伊達藩の筆頭家老の家柄で気仙沼に世居し、文学者・歌人落合直文氏の令弟に当る。

前記田川孝三博士(1909-1988)は京城帝国大学文理科大学史学科で朝鮮史を専攻され、朝鮮の歴史や文献に博通した方であった。東京大学文学部専任講師・東洋文庫専任研究員として多くの後生を指導され、また東洋文庫朝鮮資料の充実に尽力された。博士の代表書としては『李朝貢納制の研究』(東洋文庫, 1964)がある。

筆者は留学時代中期朝鮮語を学び、郷歌や吏読等の独特な漢字使用法に関心を抱

いてきた。帰国後は河合文庫中の古文書に使用される吏読を調べた。「河合文書の研究—文書形式・吏読・俗語を中心として—」(『朝鮮学報』60, 1971)を書いたが、最終校正段階に於いて、京大図書館来館中の田川博士から洪武年間の古文書を始として古い年代のものには偽文書があるとの御指摘を受けた。既に訂正は不可能で、論文末にその旨を添記した。恥ずかしいことであったが、田川博士の御指摘には感謝申している。当時田川博士は時々図書館に調査に来られており、御調査に陪席したこともあった。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に天理大学名誉教授平木実博士が参席しておられ、韓国崔承熙博士が河合文庫古文書関係の目録を発表しておられ、その中で偽文書の多いことを指摘しておられると御教示いただいた。

四. 河合文書の所蔵所

現在の図書館は昭和五十八年(1983)十月に竣工したが、筆者学生時代の図書館は昭和二十三年(1948)のものであり、当時河合文庫本は旧書庫にあった。新図書館完成と共に河合文庫は旧書庫から移された。文学部から経済学部の前を過ぎ、図書館の南側の道を西へ行くと、尊攘堂の南側をやや下り更に五段ほどの石段を降りると、東大路であった。今は新設の博物館に向かって、道は途中で右に折れている。尊攘堂には明治維新の志士の書画が所蔵されていた。一、二度入ったことがあり、品川弥二郎の書を見た記憶がある。尊攘堂の南側に道を隔てて、入学の昭和三十五年(1960)当時には保険診療所があった。保険診療所の西側、東大路との間の崖上に手洗いがあり、そこで検尿を取らされたのを覚えている。窓から視線を下げると、東大路に電車が走っていた。その北側、現在の博物館のある位置に、東大路に平行して崖の上に南から北へ煉瓦建ての二階建て倉庫三棟が繋がっていた。中央通路の両側には備え付けの書架があった。三棟は全体で20メートルほどであったと思われるが、中で繋がっていて、倉庫間には板が渡されていた。ここは旧書庫と呼ばれ、平生利用されない書がここに架蔵されていた。恐らく明治の建物で、書庫として使われていたのであろう。筆者より十年ほど下の国史学科の助手

をした方は、ここに時々資料を取りに来たが、その都度虫に噛まれて困ったとのことであった。筆者は屡々通い長居もしたが、そのような経験は無い。三棟の南側の第一棟東側に入り口があり、そこで鍵を開け、最北の第三棟の二階に河合文庫本が置かれていた。

筆者は河合文庫本を閲覧するときには先ず森島氏に申し出、森島氏が鍵を持って二人で書庫に向かった。図書館の南側にあった教育学部の校舎と保険診療所(後に教育学部の図書室に変更)の間を北へ抜けると西側に旧書庫があった。周囲は夏には雑草が生い茂っていた。鉄製の扉を開け、電気を灯し、北奥の第三棟二階から本を取り出し、二人で持ち帰った。それを繰り返すうちに信用を得、鍵を預かって一人で本の出納に当るようになった。筆者一人が一度で運べるように、工事時の砂や砂利運搬用の手押し一輪車を借りて、それを第三棟の一階まで運びいれ、それに積んで図書館に持ち帰った。返却も一人で同様に行った。雨天には閲覧はしなかったが、曇りの時にはビニールの風呂敷を借り、小雨が降るとそれで覆った。そのような状態であったため、本の出し入れに1時間ほどは必要であった。旧書庫に書籍を探しに来る職員に出会ったのは、筆者の記憶では数回ほどで、何時も一人で書庫に出入りしていた。

五. 河合文庫以外の貴重書

朝鮮本の貴重書は既に図書館で指定されたものがあり、筆者が書庫内から発見して貴重書指定を申請したものに二部がある。

その一は、庚午字印本『歴代兵要』十三巻(闕巻三)存十二冊である。庚午字は、世宗の王子安平大君の揮毫字を基に世宗三十二年庚午(1450)に鋳造された銅活字であるが、安平大君が端宗元年癸酉(1453)謀反の罪で死を賜るや、その活字は使用されなくなった。使用期間は僅か三年と短く、従って庚午字印本としては三種が伝存していただけで、これが第四番目の書となった。一冊を欠くのはまことに残念であるが、十二冊が藁縄で縛られて横積みされていた。今もその有様が目に浮かぶ。これについては、「庚午字本『歴代兵要』攷」(『朝鮮学報』119・120合併輯, 1986)で

紹介した。

その二は、『金石集帖』二百十八冊である。金在魯(1682-1759)の編かとされるが、碑文は新羅から純祖に及ぶので、後人の追補がある。この膨大な一大碑文集成には、1877件が含まれており、被伝者・撰者・揮毫者・篆額者・樹碑者は全て名人である。詳しくは上記拙著を参照いただきたいが、管見によれば、僚巻はソウル大学校奎章閣に一冊が存する。筆者は1970年代初に図書館の地下二階の鉄製階段の下の空間部に、三十冊ほどずつ積み重ねられてあるのを発見した。ところがコンクリートの上に直接積まれていたため、最下部は水分を吸って膨らみ、かなり破損していた。そこで森島氏に依頼して木製簀の子を購入してもらい、二人で積みなおした。一見貴重のものと直感したが、種々目録を検してもこの書は他に確認できなかった。後に筆者はソウル大学で僚巻一冊を確認した。当時館長は平岡武夫教授であり、『金石集帖』と『歴代兵要』を貴重書に申請し、認められた。この『金石集帖』については、何人の作製に係るのか未詳であるが、やはり横書きの棒目録があり、筆者はそれに従って順次閲覧した。高麗大学校の調査によれば、二百十九冊といい、一冊を見落したようである。

今回河合文庫目録の完成により、研究上に大きな便宜が与えられることになった。益々の研究の発展を願い、また作成に尽力された高麗大学校及び京都大学の協力を讃え、且つ犒いたい。